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The Relationship Between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A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Self-Esteem

견옥¹ 장경은² 김은혜³

Yu Zhen¹ Kyung Eun Jahng² Eun Hye Kim³

ABSTRACT

Objective: This study examined the mediating effect of adolescents' self-esteem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Methods: The research participants consisted of 1,748 adolescents aged from 15 to 16. Adolescents'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and self-esteem were measured in 2016, whereas their childhood abuse experiences were measured in 2010. Panel data collected by the National Youth Policy Institute were analyzed using the bootstrapping technique and PROCESS Macro for SPSS.

Result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adolescents'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ffected their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That is, the adolescents who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were at higher risk of breaking school rules later in life. Second, the adolescents' self-esteem medi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ir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nd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The adolescents who were abused by their parents tend to have low levels of self-esteem and thereby break school rules.

Conclusion/Implications: The present study shows the possibility that childhood abuse experiences lead to adolescents' problematic behaviors, such as school rule violation. It also indicates that it is necessary to provide counseling and therapeutic interventions for enhancing the self-esteem of adolescents of the at-risk group with childhood abuse experiences.

key words childhood abuse experiences, adolescence, school rule-breaking behavior, self-esteem

* 본 논문은 2021년 한국보육지원학회 춘계학술대회 포스터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1 제1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석사과정생

2 교신저자

경희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e-mail : kjahng@khu.ac.kr)

3 공동저자

경희대학교 일반대학원
아동가족학 전공 박사과정생

I. 서론

아동기 학대 경험(childhood abuse experiences)의 부정적 영향력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다(De Vries & Goggin, 2020; Strøm, Birkeland, Aakvaag, & Thoresen, 2021). 특히 아동기

에 있었던 트라우마적 경험(traumatic experiences)은 청소년기 및 성인기가 될 때까지 한 개인의 심리정서 및 행동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최근에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성인은 COVID-19 상황에서 높은 수준의 과민각성(hyperarousal)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하였다(John-Henderson, Counts, & Ginty, 2021). 또한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학대 피해자들은 청소년기에 다양한 문제 행동을 보이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방임이나 신체 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은 공격적인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으며(Kang et al., 2021), 정서학대를 경험한 청소년들의 경우 내재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의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Yoon, Yoon, Pei, & Ploss, 2021). 특히 학교생활에서 보이는 문제 행동은 학교 적응을 어렵게 하며 학교 내 사회적 관계 뿐만 아니라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Bub, McCartney, & Willett, 2007).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주목하였다.

학교생활에서 중요한 영역 중 하나가 학교의 규칙을 이해하고 준수하는 행동이다. 학교 규칙은 학교에 속한 구성원들이 준수할 것으로 기대되는 규범의 집합을 의미한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초등학생의 경우 규칙에 대해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고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부정적으로 인식한다(신현숙, 2005). 반면, 중·고등학생은 그 이전 연령대의 아동들과 달리 교사의 권위를 무조건적으로 따르기보다는 개인의 결정권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Smetana & Bitz, 1996). 이와 관련한 국내 연구에서는 중학생보다 고등학생이 학교 규칙에 대해서 더욱 비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보고하였다(신현숙, 2005). 이를 종합하면,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서 학교 규칙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가 높아지며 이러한 비호의성은 고등학생 시기에 가장 높은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학교 규칙을 준수해야 하는 이유와 관련하여 배화순(2017)은 학교 규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는 결국 사회의 법과 규범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 및 법 위반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따라서 학교 규칙을 준수하는 태도와 행동은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 덕목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강은영, 2017)에 의하면, 청소년이 학교 규칙에 대해 신뢰감을 가지고 있을 때 학교 공동체에서 소속감과 정서적 안정감을 느낄 수 있고 학교 규칙은 학교 공동체 의식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많이 보이는 청소년들은 학업 실패로 이어질 가능성도 높지만(Johnson, McGue, & Iacono, 2006), 학교규칙에 순응하는 학생은 학교생활에도 성공적으로 적응할 수 있다고(Kwon, Jo, & Jang, 2018) 보고되고 있다.

학교규칙 위반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남자 청소년들이 여자 청소년들보다 학교의 권위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Emler & Reicher, 1987). 반면 여학생들은 남학생들에 비해서 학교 규칙에 대하여 호의적이었다(Smetana & Bitz, 1996). 국내 연구에서는 연령이 높아졌을 때 학교규칙에 대한 비호의적인 태도가 남학생의 경우에는 강해지는 반면, 여학생의 경우 연령에 따른 차이가 없이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신현숙, 2005).

그 외에 학교규칙 위반행동과 관련된 변수로 소득과 교사와의 관계 등을 살펴볼 수 있다. 소득과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직접적 관계를 다룬 연구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낮은 소득 집단의

아동들이 높은 소득 집단의 아동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내재화 또는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iller, Betancur, Whitfield, & Votruba-Drzal, 2021).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은 부적절한 행동에 대한 자기 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외부로 발현이 되는 외현화 문제행동에 속한다(정진나, 2019). 따라서 외현화 문제행동에 속하는 학교규칙 위반행동 또한 소득과 관련이 있을 수 있다. 마찬가지로 교사와의 관계와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직접적인 관계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하다. 그러나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이 수용적일수록 학교규칙에 더 순응적이라는 연구결과(김희수, 윤은중, 2004)를 통해 청소년과 교사 간의 관계가 긍정적일수록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아동기 학대 경험과 행동 문제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상당수 진행되었다(Kelly, Faust, Runyon, & Kenny, 2002). 학대 피해자가 학대 이후 경험하는 우울, 위축, 불안 등을 포함하는 내재화 문제행동(김진, 하문선, 2020; 이선숙, 박종효, 2017; 장희선, 김기현, 2020)과 공격성, 도박 등을 포함하는 외현화 문제행동(이승주, 남재성, 2016; 이예슬, 신현지, 임숙희, 김교현, 2014; 장희선, 김기현, 2020)에 대해서는 꾸준히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아동기 학대 경험과 학교에서의 규칙 위반 행동 간의 관련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본 연구는 많지 않다. 국외 연구 중에서는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Sesar, Zivcic-Becirevic, & Sesar, 2008)에 의하면, 만 14세 이전에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고등학생은 그렇지 않은 학생들에 비해 규칙 위반 행동과 공격성을 더 많이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기 학대 경험이 문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가능한 다양한 경로에 대한 탐색도 이루어진 바 있다(박현근, 허정호, 2016; Adler, Gervinskaitè-Paulaitienè, Cekuolienè, & Barkauskienè, 2021; Hebert, Langevin, & Charest, 2020). 예를 들어, 박현근과 허정호(2016)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또래 관계를 매개로 하여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고하였다. 그 외에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문제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요인으로 정신질환(조보아, 이수정, 2017), 심리적 불안 및 우울(조제성, 김현동, 2015), 공격성을 정당화하는 믿음(Adler et al., 2021), 정서조절(Hebert et al., 2020) 등이 연구되어 왔다. 이처럼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수를 경로로 하여 청소년의 문제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 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로 청소년의 개인 내적 변수 중 하나인 자아존중감에 주목하고자 한다. 자아존중감(self-esteem)이란 개인이 자신을 유능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자신에 대한 믿음을 의미하며 인간의 생존과 행복감에 기여한다(고진영, 이경화, 2001; DuBois & Hirsch, 2000). 자아존중감은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달한다(고진영, 이경화, 2001). 가정에서 자녀가 경험하는 부모의 양육 방식(이형실, 2014)과 부모-자녀 관계(류유리, 장석진, 2015)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수용적이고 지지적이며 애정적인 양육태도를 지닌 부모의 자녀는 부모와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쉽고 이는 아동이 자기 자신을 긍정적이며 가치 있는 존재로 인식하는데 기여한다(류유리, 장석진, 2015). 반면, 부모에 의한 학대는 자녀의 자아존중감을 손상시키는 주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안형숙, 2014; 임양미, 2018). 선행연구에 의하면, 부모에 의한 학대를 경험한 자녀는 자기 자신을 쓸모없고 사랑받을

가치가 없는 존재이며 어떠한 성과도 이루어내기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안형숙, 2014). 김경호(2020)는 고등학생이 지각하는 학대 정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준의 우울을 경험하며, 학대와 우울 간의 관계를 자아존중감이 매개한다고 보고하였다.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의 경우에도 부모의 학대는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이는 아동의 우울과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우수정, 2017).

자아존중감과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그 동안의 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 학교규칙 위반행동만을 특정하여 자아존중감의 영향력을 조사하기 보다는 학교규칙을 포함한 학교 적응 전체 점수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설명력을 주로 보고하고 있다(송진영, 최영란, 2016; 홍명숙, 이수영, 2017).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과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없으나, 학대 피해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 적응 문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오승재, 이영광, 지은구, 2019; 이시연, 2014; 이영애, 2018; 이영애, 2019; 이윤아, 최진아, 2015). 또한,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닌 청소년은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오창택, 2018). 연구 대상은 다르지만, 중학생 학교폭력 참여자에 대한 연구(이충호 등, 2017)에서는 학교폭력 가해 조력자와 가해 강화자 집단에 속하는 중학생들은 다른 집단에 비해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보였고, 가해 조력자와 가해 강화자 집단에 속하는 학생들은 더 높은 빈도로 규칙 위반을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면, 낮은 자아존중감과 규칙 위반 행동 간에는 높은 관련성이 있으며, 자아존중감이 낮을수록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지금까지 진행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으로 인하여 자아존중감이 저하되며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학교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세 변수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는 청소년이 지각하는 부모의 현재 학대 행위를 조사하거나(김혜금, 조혜영, 2016; 오승재 등, 2019; 이시연, 2014) 청소년이 그들의 기억에 의존하여 아동기 학대 경험 여부에 대해 응답하는(Sesar et al., 2008) 방식으로 측정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과거에 발생하였던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을 측정하여 학교규칙 위반 행동과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살펴본 국내 연구는 없다.

종합해 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기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중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특히 매개효과를 탐색하는 것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연결고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하다. 효과적인 개입이 제공된다면 변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자아존중감이기 때문에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한다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대한 예방 및 중재 방법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Valdez, Lim, & Parker, 2015).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을 중요한 매개변수로 보고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에 바탕으로 설정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매개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orean Children & Youth Panel Study: KCYPS)의 초4 패널 자료 중 1차(2010년)에서 7차(2016년)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1차와 7차년도 조사에 참여한 대상자 중 결측치를 제외한 1,748명(남자: 1,031명, 여자: 934명)으로 만 15-16세에 해당하는 청소년들이다. 이 연령대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한 이유는 이 시기 청소년들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하여 새로운 생활을 시작해야 하는 전이기에 해당하는 시기이면서 새로운 학교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과업을 수행해야 하는 시기이다. 무엇보다도 규칙에 대한 부정적 태도는 청소년 비행(신현숙, 2004) 또는 이후 성인기 범죄(정익중, Nagin, Hawkins, & Hill, 2001)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연구대상인 청소년들의 아버지 학력은 대졸이 718명(41.1%), 고졸이 635명(63.3%) 순으로 많았으며, 어머니의 학력은 고졸이 752명(43.0%)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대졸은 585명(33.5%)이었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평균 4952만원($SD = 2276.92$)이었으며,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평균 15.13($SD = 2.77$)로 비교적 높은 편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사회인구학적 변수 (N = 1,748)

변수	빈도(명)	백분율(%)	변수	빈도(명)	백분율(%)
청소년 성별					
남자	832	47.6			
여자	916	52.4			
아버지 학력			어머니 학력		
중졸 이하	41	2.3	중졸 이하	30	1.7
고졸	635	63.3	고졸	752	43.0
전문대졸	179	10.2	전문대졸	266	15.2
대졸	718	41.1	대졸	585	33.5
대졸 이하	85	4.9	대학원졸	49	2.8
결측	90	5.1	결측	66	3.8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연평균 가구소득 (단위: 만원)	4952.05	2276.92	200	20000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15.13	2.77	5	20	

2. 측정도구

1) 학교규칙 위반행동

본 연구에서는 민병수(1991)가 제작한 학교생활적응 척도의 문항 중에서 학교규칙에 해당하는 내용을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측정하였다. 학교생활적응 척도는 학습활동, 학교규칙, 교우관계, 교사관계를 포함하는 4개의 하위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총 20문항으로 각 영역은 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교규칙에 해당하는 5문항만 사용하였다. ‘복도와 계단을 다닐 때 뛰지 않고 조용히 다닌다,’ ‘학교 물건을 내 것처럼 소중히 사용한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의 4점 Likert 척도로 측정된다. 점수가 높을수록 청소년이 학교규칙을 따르지 않고 위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규칙 위반행동은 2016년도에 만 15-16세 청소년들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학교규칙 위반행동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2) 아동기 학대 경험

본 연구에서는 허묘연(2000)과 김세원(2003)의 아동학대 문항을 참고하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재구성한 도구를 사용하여 아동기 학대 경험을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내가 잘못하면 무조건 때리려 하신다’ 등의 문항을 포함한다. 문항 내용은 신체학대, 정서학대, 언어학대에 해당하는 부모의 행위 여부에 대해 아동이 직접 응답하도록 되어 있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에 해당하는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었다. 모든 문항을 역으로 합산하였고 점수의 범위는 4-16점이다. 총점이 높을수록 아동기에 부모로부터 학대를 많이 받은 것으로 아동이 지각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2010년도 연구대상인 청소년이 만 10-11세인 시기에 그들이 응답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자아존중감

본 연구에서는 Rosenberg(1965)의 자아존중감 척도를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2001)가 번안하여 사용한 척도를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 연구진이 수정 및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을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총 1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나에게는 좋은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의 문항을 포함한다. 각 문항은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에 해당하는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되고 점수의 범위는 10-40점이다. 일부 문항은 역채점하여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높은 수준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4로 나타났다.

4) 통제변수

선행연구에서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된 변수인 청소년의 성별(남성 = 1, 여성 = 0), 연평균 가구소득,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를 통제 변수로 투입하였다.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와의 관계 척도는 총 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우 그렇다(1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4점)를 포함하는 4점 Likert 척도로 평정된다. 문항은 ‘선생님을 만나면 반갑게 인사한다’ 등을 포함하며, 역채점하여 합산된 총점이 높을수록 청소년이 지각하는 교사와의 관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이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81로 나타났다.

3. 자료분석

자료에 대한 분석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첫째, SPSS Statistics 23.0을 이용하여 주요 변수들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을 포함한 기술 통계와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를 산출하였다. 둘째, 표본의 정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왜도 및 첨도를 산출하였다. 셋째, PROCESS Macro (version 3.3) (Hayes, 2013)를 사용하여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는 배경변인들(청소년의 성별, 연평균 가구소득,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을 통제한 뒤,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넷째, PROCESS Macro를 이용하여 아동기 학대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간접효과의 유의성 검정은 부트스트랩(bootstrap) 95% 신뢰구간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부트스트랩 표본 수는 5,000개로 설정하였다.

Ⅲ. 결과 및 해석

1. 주요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 및 상관관계 분석

먼저, 아동기 학대 경험,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및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포함하는 주요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과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변수들의 전반적인 경향은 표 2에 제시하였다. 아동기 학대 경험은 평균 7.00($SD = 2.52$)으로 학대 경험은 비교적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평균은 30.46($SD = 4.52$)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의 평균은 9.28($SD = 2.42$)로 다소 낮은 수준이었다.

표 2. 주요변수의 전반적 경향 (N = 1,748)

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값	최대값	왜도	첨도
아동기 학대 경험	7.00	2.52	4.00	16.00	.96	.86
자아존중감	30.46	4.52	13.00	40.00	-.10	.01
학교규칙 위반행동	9.28	2.42	5.00	20.00	.07	.58

다음으로 통제 변수와 주요 변수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청소년의 성별은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r = .06, p < .01$), 아동기 학대 경험($r = .21, p < .001$), 자아존중감($r = .07, p < .01$), 학교규칙 위반행동($r = .12, p < .001$)과 모두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여학생보다 남학생이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수준 및 자아존중감이 높은 반면 아동기 학대 경험도 많고 학교규칙 위반행동도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을 의미한다. 연평균 가구소득은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r = .05, p < .05$) 및 자아존중감($r = .08, p < .01$)과 정적 상관을 보인 반면, 아동기 학대 경험($r = -.10, p < .001$) 및 학교규칙 위반행동($r = -.08, p < .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이 높은 가정의 청소년일수록 교사와의 관계도 긍정적이며 자아존중감도 높고, 아동기 학대 경험은 적고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보일 가능성도 적은 것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는 아동기 학대 경험($r = -.07, p < .01$) 및 학교규칙 위반행동($r = -.38, p < .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였고, 자아존중감($r = .40, p < .001$)과는 강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이는 교사와 긍정적인 관계를 보이는 청소년들은 아동기 학대 경험도 적고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할 가능성도 낮은 반면, 자아존중감은 높은 것을 시사한다.

주요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자아존중감($r = -.08, p < .001$)과는 부적 상관을 보인 반면, 학교규칙 위반행동($r = .15, p < .001$)과는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아동기에 학대 경험이 많은 청소년들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지니고 있고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다. 청소년의 자아존중감과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에는 강한 부적 상관($r = -.32, p < .001$)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자아존중감이 높은 청소년들은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은 것을 의미한다.

표 3. 상관분석 결과 (N = 1,748)

변수	1	2	3	4	5	6
1. 청소년 성별	1					
2. 연평균 가구소득	-.04	1				
3. 교사와의 긍정적인 관계	.06**	.05*	1			
4. 아동기 학대 경험	.21***	-.10***	-.07**	1		
5. 자아존중감	.07**	.08**	.40***	-.08***	1	
6. 학교규칙 위반행동	.12***	-.08**	-.38***	.15***	-.32***	1

* $p < .05$, ** $p < .01$, *** $p < .001$.

2.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

첫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포함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 청소년의 성별, 연평균 가구소득과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한 뒤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

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4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같이, 과거에 아동기 학대 경험을 높게 지각한 청소년은 이후 학교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더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B = .09, t = 3.98, 95\%CI [.0433, .1275]$).

표 4.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N = 1,748)

변수	B	S.E.	t	p	95% 신뢰구간	
					LLCI	ULCI
청소년 성별	.59***	.11	5.49	.000	.3807	.8042
연평균 가구소득	.00	.00	-2.02	.043	-.0001	.0000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33***	.02	-17.48	.000	-.3703	-.2956
아동기 학대 경험	.09***	.02	3.98	.000	.0433	.1275
$R = .42$		$R^2 = .18$		$F = 93.89$		$p = .000$

*** $p < .001$.

3.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두 번째 연구문제인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PROCESS Macro Model 4(Hayes, 2013)를 적용하여 매개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5에 제시된 분석 결과와 같이,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N = 1,748)

독립변수	종속변수: 자아존중감			종속변수: 학교규칙 위반행동		
	B	S.E.	t	B	S.E.	t
청소년 성별	.60	.20	2.96**	.66	.11	6.21***
연평균 가구소득	.00	.00	2.32*	.00	.00	-1.58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	.63	.04	17.43***	-.27	.02	-13.11***
아동기 학대 경험	-.12	.04	-2.96**	.07	.02	3.43***
자아존중감				-.11	.01	-8.70***
$R^2 = .17$			$R^2 = .21$			
$F(p < .001) = 86.72$			$F(p < .001) = 93.48$			

* $p < .05$, ** $p < .01$, *** $p < .001$.

매개효과의 총효과, 직접효과 및 간접효과는 표 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총 5,000번의

Bootstrapping을 재표집한 결과,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부분매개효과가 확인되었다. 즉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직접적인 영향($B = .07, 95\%CI[.0311, .1138]$)을 미치는 동시에, 그들의 자아존중감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B = .01, 95\%CI[.0040, .0231]$)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Bootstrapping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하였다.

표 6. 매개효과의 Bootstrapping 결과 (N = 1,748)

매개경로	Effect	S.E.	95% 신뢰구간	
			LLCI	ULCI
총효과	.09	.02	.0433	.1275
직접효과	.07	.02	.0311	.1138
간접효과	.01	.00	.0040	.0231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과 이 두 변수 간의 관계에 대한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과거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이후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동기 학대 경험이 있는 청소년은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을 형성하게 되며 이는 결국 학교규칙 위반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대해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을 연구대상자가 만10-11세에 해당하는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측정하였다.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남학생이 여학생보다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은 반면, 교사와 긍정적 관계를 형성한 청소년들은 학교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이 낮았다.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청소년 성별 및 교사와의 긍정적 관계의 영향력이 매우 높지만, 성별과 교사와의 관계를 통제한 후에도 아동기 학대 경험이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설명력이 여전히 유의하게 나타난 것을 의미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즉 청소년의 성별 및 교사와의 관계와 상관없이 아동기에 학대 피해를 당한 경험이 많을수록 이후에 청소년이 되어서 학교 규칙에 순응하지 않고 위반하는 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즉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영향력을 보이는 변수들을 통제하고도 아동기 학대 경험은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변수로 파악된다. 이는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장기적으로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결과(Adler et al., 2021; Hebert et al., 2020)를 지지하며, 특히 학대의 피해자가 이후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이승주, 남재성, 2016; 장희선, 김기현, 2020)와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일반적으로 규칙을 위반하는 행동을 품행장애의 증상 중 하나로 정신병리 관점에서 임상 그룹을 대상으로 조사한 연구(Lillig, 2018)는 있으나 비장애 범위에서 전형적인

발달을 보이는(typically developing) 아동 및 청소년의 규칙위반 행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는 드물었다(Adler et al., 2021).

기존 연구들은 과거에 발생한 학대 경험을 측정하기 보다는 현재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청소년 자녀의 인식을 측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김혜금, 2015; 오승재 등, 2019; 이시연, 201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당시의 학대 피해 경험을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여 자녀가 지각한 부모에 의한 학대가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입증하였다는 것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둘째,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은 아동기 학대 경험과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개효과에서 인과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변수들 간의 시간적 순서(temporal sequence)가 중요한 전제가 된다(Gelfand, MacKinnon, DeRubeis, & Baraldi, 2016; Preacher, 2015).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은 2010년도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자아존중감은 학교규칙 위반행동과 동일하게 2016년도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시간적 순서라는 요구 전제를 충족시키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자아존중감 형성에는 부모와의 관계가 주요한 기본 틀로 작용하고(고진영, 이경화, 2001; 류유리, 장석진, 2015), 부모와의 관계 및 양육방식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자아존중감이 부모에 의한 학대로 인하여 손상될 가능성이 있고, 이로 인하여 이후 학교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문제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연구에서 변수들 간의 시간적 순서 조건이 위배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아동기 학대 경험과 이후 청소년의 문제행동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에 대한 최근 연구(Adler et al., 2021)를 살펴보면, 타인의 관점에서 생각하거나 자신에 대해 반성적 사고를 하는 능력의 부족과 타인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해결방법으로 공격성을 정당화하려는 신념을 아동기에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이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이는 이유로 파악하고 있다. 물론 아동기 학대 경험이 문제행동으로 이어지는 경로에는 다양한 매개변수들이 존재할 수 있으며 이 두 변수 간의 관계를 매개하는 변수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는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이 이후 문제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제공할 수 있는 개입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이 중요한 매개변수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아동기에 학대 피해 경험은 피해자의 자아존중감을 저하시키고,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은 결국 학교라는 조직 내에서 지켜야 하는 규칙에 대한 비우호적인 태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Adler 등(2021)는 아동기에 학대 피해를 겪은 청소년의 경우 학대 가해자의 정신 상태(mental state)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매우 고통스럽기 때문에 자신과 타인의 정신 상태에 대해 고민해보려는 시도를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즉, 학대 피해 경험은 결국 자신과 타인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하는 능력의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Adler et al., 2021)는 것이다. 자기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이해(self-mentalization)가 부족한 경우 자아존중감도 낮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Ballespi, Vives, Sharp, Chanes, & Barrantes-Vidal, 2021)에 비추어 보면, 아동기 학대 피해로 인한 자신의 정신 상태에 대한 이해 부족이 결국 피해 아동의 자아존중감 손상을 초래할 수 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낮은 수준의 자아존중감이 외현화 문제행동과 높은 관련성을 보인다는 것은 이미 상당수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Thompson, Wojciak, & Cooley, 2016; Trzesniewski et al., 2006). 여기에서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낮은 자아존중감과 학교의 규칙에 순응하지 않는 행동

과의 관련성을 파악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의 결과는 아동기 학대 경험을 지닌 청소년들이 학교규칙을 위반하고 학교 생활 부적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군에 속하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키는 방식의 중재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동기에 학대 피해 경험이 있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그들이 어떠한 자아개념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들이 자신이 가치 있고 소중하며 쓸모 있는 존재라고 바라볼 수 있도록 아동복지 실천 현장에서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이 보급되어야 하며(이상정, 정익중, 2018), 그 접근성 또한 높일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 실시되고 있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이 자아존중감 향상이라는 단일 목표로 설계되지 않았다는 점(이상정, 정익중, 2018)을 고려할 때, 자아존중감 향상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 개발이 요구되며 이는 프로그램의 효과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적 특성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상담 및 치료적 개입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보다 긍정적인 자아 개념과 자신의 가치에 대한 믿음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을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측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학대 유형별로 학대 피해 경험이 청소년의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세부적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없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피해 경험을 세부 유형별로 측정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여 학대 피해 경험이 학교규칙 위반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학대 유형별로 나누어 조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는 양적 연구이기 때문에 학교 규칙을 위반하게 되는 상황적, 맥락적 이해에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질적연구를 통해 학교 규칙을 위반하는 청소년들이 처한 상황과 맥락에 대한 심층적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이러한 문제행동을 중재하기 위한 접근법을 보다 다각적인 관점에서 개별적인 방식으로 설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아동기 학대 경험은 초등학교 4학년 시기에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매개 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중속 변인인 학교규칙 위반행동과 동일한 시기에 측정된 자료를 사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다변량 잠재성장모형을 이용하여 이 세 변인 간의 관계에서 종단적 매개효과를 확인할 수 있겠다.

참고문헌

- 강은영 (2017). 청소년의 학교규칙 신뢰감이 학교 공동체의식에 미치는 영향. **법교육연구**, 12(1), 1-22. doi:10.29175/klrea.12.1.201704.1
- 고려대학교 부설 행동과학연구소 (2001). **심리척도 핸드북 II**. 서울: 학지사.
- 고진영, 이경화 (2001). 유아·아동기 자아존중감의 발달적 특성 탐색. **한국영유아보육학**, 25, 327-351.
- 김경호 (2020). 청소년이 지각하는 학대와 방임이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우울에 미치는 영향: 초·중·고등학생의 비교. **청소년복지연구**, 22(3), 67-100. doi:10.19034/KAYW.2020.22.3.03
- 김세원 (2003). 사회적지지와 학대경험 아동의 적응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진, 하문선 (2020). 청소년기 부모학대 경험이 사이버비행에 미치는 영향: 사회적 위축과 우울의 순차적 매개 효과. **중등교육연구**, 68(1), 97-133.
- 김희수, 윤은중 (2004). 청소년이 지각한 교사의 행동과 애착안정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15(2), 93-115.
- 김혜금 (2015). 성별과 학년 시기별 아동이 지각한 부모의 방임/학대와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관한 단기종단연구.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1(1), 355-371. doi:10.14698/jkce.2015.11.1.355
- 김혜금, 조혜영 (2016). 부모의 방임·학대가 학령기 아동의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학령기 아동의 자아인식과 또래애착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2(1), 19-36. doi:10.14698/jkce.2016.12.019
- 류유리, 장석진 (2015). 아동이 지각한 부모-자녀 관계와 역기능적 분노표현의 관계: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상담학연구**, 16(5), 371-384. doi:10.15703/kjc.16.5.201510.371
- 민병수 (1991). 학교생활적응과 자아개념이 학업성적에 미치는 영향. **홍익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화순 (2017). 규범의 행동 영역과 운영 방법이 학교 규칙에 대한 학생의 태도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현근, 허정호 (2016). 아동학대가 청소년의 정서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교우 관계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학교사회복지**, 36, 23-46.
- 송진영, 최영란 (2016). 고등학생의 청소년활동참여가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동체의식과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교육문화연구**, 22(5), 179-207. doi:10.24159/joec.2016.22.5.179
- 신현숙 (2004). 비행 청소년과 일반 청소년의 어른 권위 및 규율 위반에 대한 개념화. **청소년학연구**, 11(2), 341-370.
- 신현숙 (2005). 교사 권위와 학교규칙 위반행위에 대한 중·고등학생 판단의 성별 및 학교급별 차이. **교육학연구**, 43(1), 25-55.
- 안형숙 (2014). 부모로부터의 학대 경험이 아동의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미래유아교육학회지**, 21(1), 185-203.
- 오승재, 이영광, 지은구 (2019). 아동학대와 학교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과학연구**, 38(1), 31-63. doi:10.18284/jss.2019.04.38.1.31
- 오창택 (2018). 부모의 과잉간섭이 청소년의 학교규칙위반에 미치는 영향: 자아 존중감과 휴대폰 중독의 직렬다중매개효과. **교정복지연구**, 56, 53-82. doi:10.35422/cwsk.2018.56.3
- 우수정 (2017). 부모의 학대가 아동의 우울 및 불안에 미치는 영향: 아동의 또래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보육지원학회지**, 13(4), 37-51. doi:10.14698/jkce.2017.13.04.037
- 이상정, 정익중 (2018). 아동 자아존중감 향상 프로그램에 관한 메타분석. **보건사회연구**, 38(3), 45-74. doi:10.15709/hswr.2018.38.3.45
- 이선숙, 박종효 (2017). 특성화 고등학생의 아동학대경험이 학교참여 및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용서의 조절효과. **인간발달연구**, 24(2), 59-85. doi:10.15284/kjhd.2017.24.2.59

- 이승주, 남재성 (2016). 아동학대 경험에 따른 자존감 저하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범죄심리연구**, 12(3), 87-112.
- 이시연 (2014). 청소년이 지각한 학대와 학교생활적응 간 관계: 자아존중감과 우울의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2(2), 401-420. doi:10.35151/kyci.2014.22.2.017
- 이윤아, 최진아 (2015). 부모의 학대, 방임과 청소년의 학교생활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3(3), 331-339. doi:10.6115/fer.2015.026
- 이영애 (2018). 학령기 후기 아동의 학대경험, 우울, 공격성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자아탄력성의 조절된 매개효과. **청소년상담연구**, 26(1), 277-297. doi:10.35151/kyci.2018.26.1.014
- 이영애 (2019). 아동의 학대경험이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 공격성, 또래관계, 우울 및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다중매개효과. **아동학회지**, 40(2), 25-37. doi:10.5723/kjcs.2019.40.2.25
- 이예슬, 신현지, 임숙희, 김교현 (2014. 8). **가족학대경험이 도박 중독에 미치는 영향: 성별의 조절효과**. 한국심리학회 연차 학술대회 포스터발표 논문, 서울.
- 이충호, 이지원, 신윤미, 김영훈, 이영문, 이제정 (2017). 학교폭력 참여자 역할에 따른 정신병리 비교. **신경정신의학**, 56(3), 111-117. doi:10.4306/jknpa.2017.56.3.111
- 이형실 (2014). 부모의 양육행동과 청소년의 또래관계 간 관련성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26(4), 75-83.
- 임양미 (2018). 부모학대 및 방임이 남녀 고등학생의 자아탄력성과 자아존중감에 미치는 영향: 또래애착과 교사친밀감의 조절효과. **한국가정과교육학회지**, 30(2), 57-75. doi:10.19031/jkheea.2018.06.30.2.57
- 장희선, 김기현 (2020). 아동학대 발생 환경 내의 누적적 위험요인과 아동 문제행동 간의 종단 연구: 아동학대 변화궤적 잠재계층의 매개요인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51(1), 5-39. doi:10.16999/kasws.2020.51.1.5
- 정익중, Nagin, D. S., Hawkins, J. D., & Hill, K. G. (2001). 관찰대상중심적 접근을 통한 청소년 비행의 발달궤적 연구. **사회복지연구**, 17, 197-218.
- 정진나 (2019). 5세 언어능력과 7세 외현화 문제행동의 관계: 성별 차이 및 자기통제의 종단적 매개효과 검증. **아동학회지**, 40(3), 27-38. doi:10.5723/kjcs.2019.40.3.27
- 조보아, 이수정 (2017). 소년범의 피학대 경험과 문제행동의 관계에서 정신질환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31(1), 79-95. doi:10.21193/kjspp.2017.31.1.005
- 조제성, 김현동 (2015). 부모로부터 학대 경험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심리적 불안, 우울감의 매개효과. **한국범죄심리연구**, 11(1), 169-188.
- 허묘연 (2000).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 양육행동 척도 개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홍명숙, 이수영 (2017). 청소년의 또래관계와 교사와의 관계가 자아존중감을 매개로 학교생활적응에 미치는 영향. **사회복지경영연구**, 4(1), 183-211.
- Adler, A., Gervinskaitè-Paulaitienè, L., Cekuolienè, D., & Barkauskienè, R. (2021). Childhood maltreatment and adolescents' externalizing problems: Mentalization and aggression justification as

- mediators. *Journal of Aggression, Maltreatment & Trauma*, 30(1), 54-69. doi:10.1080/10926771.2020.1783733
- Ballespi, S., Vives, J., Sharp, C., Chanes, L., & Barrantes-Vidal, N. (2021). Self and other mentalizing polarities and dimensions of mental health: Association with types of symptoms, functioning and well-being. *Frontiers in Psychology*, 12, 566254. doi:10.3389/fpsyg.2021.566254
- Bub, K. L., McCartney, K., & Willett, J. B. (2007). Behavior problem trajectories and first-grade cognitive ability and achievement skills: A latent growth curve analysis.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9(3), 653-670. doi:10.1037/0022-0663.99.3.653
- De Vries, I., & Goggin, K. E. (2020). The impact of childhood abuse on the commercial sexual exploitation of yout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21(5), 886-903. doi:10.1177/1524838018801332
- DuBois, D. L., & Hirsch, B. J. (2000). Self-esteem in early adolescence from stock character to marquee attraction. *Journal of Early Adolescence*, 20(1), 5-11. doi:10.1177/0272431600020001001
- Emler, N., & Reicher, S. (1987). Orientations to institutional authority in adolescence. *Journal of Moral Education*, 16(2), 108-116. doi:10.1080/0305724870160203
- Gelfand, L. A., MacKinnon, D. P., DeRubeis, R. J., & Baraldi, A. N. (2016). Mediation analysis with survival outcomes: Accelerated failure time vs. proportional hazards models. *Frontiers in Psychology*, 7, 423. doi:10.3389/fpsyg.2016.00423
- Hayes, A. F. (2013). *Introduction to mediation, moderation, and conditional process analysis: A regression-based approach*. New York, NY: The Guilford Press.
- Hebert, M., Langevin, R., & Charest, F. (2020). Disorganized attachment and emotion dysregulation as mediators of the association between sexual abuse and dissociation in preschoolers.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67, 220-228. doi:10.1016/j.jad.2020.02.032
- John-Henderson, N. A., Counts, C. J., & Ginty, A. T. (2021). Associations between childhood abuse and COVID-19 hyperarousal in adulthood: The role of social environment. *Frontiers in Psychology*, 12, 565610. doi:10.3389/fpsyg.2021.565610
- Johnson, W., McGue, M., & Iacono, W. G. (2006). Genetic and environmental influences on academic achievement trajectories during adolescence. *Developmental Psychology*, 42, 514-532. doi:10.1037/0012-1649.42.3.514
- Kang, C., Chang, H. J., Zhang, Y. M., Han, J., Meng, H., Peng, C. et al. (2021). Specific effects of neglect and physical abuse on adolescent aggressive behaviors by gender: A multicenter study in rural China.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 281, 271-278. doi:10.1016/j.jad.2020.12.019
- Kelly, D., Faust, J., Runyon, M. K., & Kenny, M. C. (2002). Behavior problems in sexually abused children of depressed versus nondepressed mothers. *Journal of Family Violence*, 17(2), 107-116. doi:10.1023/A:1015010616071
- Kwon, J. Y., Jo, H. Y., & Jang, M. Y. (2018). The longitudinal effects of school adjustment on depres-

- sion in school-aged children: Focusing on teacher-child relationships and school rules. *International Journal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24, 73-93.
- Lillig, M. (2018). Conduct disorder: Recognition and management. *American Family Physician*, 98(10), 584-592.
- Miller, P., Betancur, L., Whitfield, K., & Votruba-Drzal, E. (2021). Examining income dynamics and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trajectories through a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lens: A nationally representative stud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33(1), 1-17. doi:10.1017/S0954579419001494
- Preacher, K. J. (2015). Advances in mediation analysis: A survey and synthesis of new development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66, 825-852. doi:10.1146/annurev-psych-010814-015258
-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 Sesar, K., Zivcic-Becirevic, I., & Sesar, D. (2008). Multi-type maltreatment in childhood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in adolescence: Questionnaire study among adolescents in Western Herzegovina Canton. *Croatian Medical Journal*, 49(2), 243-256. doi:10.3325/cmj.2008.2.243
- Smetana, J. G., & Bitz, B. (1996). Adolescents' conceptions of teachers' authority and their relations to rule violations in school. *Child Development*, 67(3), 1153-1172. doi:10.2307/1131885
- Strøm, I. F., Birkeland, M. S., Aakvaag, H. F., & Thoresen, S. (2021). Trajectories of alcohol use and alcohol intoxication in young adults exposed to childhood violence and later problematic drinking behavior. *Journal of Family Violence*, 36(2), 223-233. doi:10.1007/s10896-019-00094-8
- Thompson, H. M., Wojciak, A. S., & Cooley, M. E. (2016). Self-esteem: A mediator between peer relationships and behaviors of adolescents in foster care.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66, 109-116. doi:10.1016/j.childyouth.2016.05.003
- Trzesniewski, K. H., Moffitt, T. E., Poulton, R., Donnellan, M. B., Robins, R. W., & Caspi, A. (2006). Low self-esteem during adolescents predicts poor health, criminal behavior, and limited economic prospects during adulthood. *Developmental Psychology*, 42(2), 381-390. doi:10.1037/0012-1649.42.2.381
- Valdez, C. E., Lim, B. H., & Parker, C. P. (2015). Positive change following adversity and psychological adjustment over time in abused foster youth. *Child Abuse & Neglect*, 48, 80-91. doi:10.1016/j.chiabu.2015.07.007
- Yoon, D., Yoon, S., Pei, F., & Ploss, A. (2021). The roles of child maltreatment types and peer relationships on behavior problems in early adolescence. *Child Abuse & Neglect*, 112, 104921. doi:10.1016/j.chiabu.2020.104921

논문투고: 21.07.07

수정원고접수: 21.11.10

최종게재결정: 21.12.08